



베트남 노동시장의 변화

Adam Fforde (호주 멜버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

베트남은 1990년대 초반 시장경제의 등장 이후로 빠른 경제성장을 누려 왔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거시경제적 혼란이나 정치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부문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해외투자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 이후 점진적으로 베트남은 많은 해외 논평가들로부터 ‘정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현재의 체제가 이전의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체제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굳이 알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이행 과정

베트남 공산당이 1954년 독립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정권을 획득했으나(민족주의 베트남 연합이 1945년 독립을 선언했다), 남부 지역은 1975년까지 비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통제되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마오쩌둥식 좌파주의 모델을 택하기보다는 ‘유연한’ 소련식 계획경제 모델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농촌 지역의 민영 경작지 등, 스탈린주의에서 허용하는 시장은 비교적 개발이 자유로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 동안 ‘극도의 국수주의’는 군사 부문으로만 제한되었으며, 당은 관료주의 숙청, 경제개발을 위한 과도한 대량 동원, 개인 우상주의 등의 문제를 피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 비해서 덜 긴장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초 국영기업은 ‘시장경제 친화적’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 비효율과 제한적인 억압이 자유시장에서 높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인데, 이러한 관행이 중지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1975년 베트남 통일을 전후로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는 높은 수준이었고, 북쪽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식량 원조에 의존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중단은 남쪽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으나, 단기적으로 전쟁 기간 동안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베트남 정권이 지속적으로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확보하였으며 많은 서방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소련식 모델의 ‘유연한’ 도입이라는 전통은 공산당 내부의 기강이 낮았다는 의미이고, 자연자원이 풍족한 남쪽으로는 북쪽 및 중앙지방의 빈곤민 유입은 통일 베트남에 계속 계획경제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었다. 남쪽 지역의 당 서기관들은 강제된 집단주의 논리에 따르기를 거부했고, 국영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식량과 다른 소비재의 배급 시스템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1978년에서 1980년 동안 캄보디아를 둘러싸고 발생한 국제적 긴장 상태로 인해 베트남이 중국과 서방으로부터 받던 원조가 대부분 중단됨으로써 계획경제 당국자들의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당시 대부분의 인구가 농민이었던 베트남의 1인당 GDP는 극도로 낮았으며 지방과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영양실조가 만연했다. 중요한 점은 여당인 공산당의 ‘유연적’ 태도가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반응이 다른 일부 공산주의 국가와는 달리 보안 기구설치, 대량 동원 및 문화적 압박에 더욱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국영기업의 근로자와 관리자들은 많은 경우 계획경제의 규제를 무시하고 잠재적 공급처와 불법적인 직접 준시장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관행은 1979년 개최된 제6차 공산당 총회에서 장려되었으며, 이는 생산 증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해되었다. 베트남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관망에서의 탈피’라고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으로 창출한 추가 자원은 근로자의 소비와 국영기업 내 ‘자체 수익’으로 유지되었다.

1979~80년 사이(과거 ‘시장 친화적’ 경향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이러한 관행을 기본으로 추가적인 변화를 불러온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선, 현실에 깊은 기반을 둔 비교적 개방된 토론이 진행되었다. 즉 신문에서는 국영기업의 경험을 실은 기사, 근로자와 관리자의 의견 등이 게재되었는데 물론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위협하지 않

도록 표현이 조절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중앙당이 도입했던 ‘유연한’ 관행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일종의 독립투쟁의 성격을 가지는 북쪽 지역의 ‘광고교회파(broad church)’ 포괄주의 정치 전통을 잇는 것이었다. 물론 허용된 자유의 범위를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는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또한 지역의 ‘전환 정책(transition policy)’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몇 년 새에 자생적 개혁가들이 논쟁을 장악하게 되었다.

둘째, 당은 주요한 정책 결정을 내렸고, 이는 1981년 초 국가가 도입한 핵심 시행령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다. 본 시행령 25-CP는 모든 국영기업이 시장에 참여하여 공급품을 확보하고 단지 ‘소량의 비핵심 제품’ 뿐만 아니라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제품을 포함하는 생산물 판매를 합법적으로 허가했다. 본 시행령이 모든 국영기업에 적용된 것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 훨씬 앞선 조치였는데, 예를 들면 중국은 이로부터 몇 년 후 시장경제로의 시험을 확대 시행했다. 경제 변화의 원동력과 이후의 자유화는 국영기업의 사유화에서 비롯되었다. 근로자와 관리자 간의 긴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증가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소비 증가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인해 자본을 축적하기 어려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의 원조는 중단된 중국과 서방의 원조를 대신했다. 생산량은 꽤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계획경제 조직은 상대적인 상황의 개선을 시행령 25-CP를 통해 국영기업에 제공한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관리자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위 당간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자원이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적 이해관계’가 증가하여 계획경제 조직의 반응을 무마하였으며 1986년 개최된 제6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기간 동안 관리자와 근로자의 공식적 대표자들이 ‘훌륭한 당원’이었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당의 ‘유연적’ 전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내부 민주주의(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주요한 지도적 인물이 없었다)와 결합하여 국영기업이 자체 이익을 추구하도록 했다.

1980년대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베트남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원동력이었다. 농민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집단화에서 탈피하여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상황에 새로이 등장했으며 강한 정치적 관계를 보유했다. 근로자들은 계획경제 당국자들이 정하는 표준 고정임금과 소속된 국영기업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상당한 수준의 추가임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공산당이 지역근로자위원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유고슬라비아의 혼합사회주의 모델과 유사하나, 이 모델이 그대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근로자들의 입장은 소련연방의 붕괴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두 가지 주요한 결과가 발생했다.

우선, 매년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소비에트연방의 원조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이는 계획경제의 와해로 이어졌는데, 소련이 지원하던 일상 재화를 취득하고 이 통제 물품(석유, 원자재, 식품 등)을 국영기업과의 협상에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1991년 사이 국영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해방' 되었으며, 놀랍게도 1980년대 시행된 구조조정 효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능했다. 1989년 국경 지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국경을 개방하여(특히 중국과의 국경) 베트남 시장에 재화의 공급을 확대하였으므로, 이들은 거의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상황에서 경쟁이 가능했던 것이다.

둘째, 정치적인 반응을 야기했다. 공산당은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정책 변화(1980년대 후반 일상생활에서도 스탈린의 잔재를 제거하는)에서 살아남았기에 일정 수준의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유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반응으로 당시 민간 부문의 도래를 지연시켰다.

1990년대에 베트남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시험적으로만 도입되었으며 중국처럼 적극 유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국영기업 부문 때문이었는데 (이 단계에서는) 국영기업의 성공은 적극적으로 민간부문 활성화를 원하지 않았던 당이 해외기업들에 큰 양보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1990년대 후반까지 미국이 쉽사리 적대적인 입장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진출은 어려웠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유럽과 일본으로의 진출은 비교적 쉬웠다. 외국인 투자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베트남 정부는 근로자들에 대한 폭력은 국가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남아 다른 지역에서 특히 한국인 관리자에 의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들이 예외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의 권한 및 노동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1990년대 국영기업의 수익을 공유하기 위해 비교적 강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임금이 노동의 수요·공급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노동계급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낸 강력한 힘이 탄생했다.

이러한 원동력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들이 국내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주지할 만하다.

우선, 중국과는 달리 당시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 등장한 노동계급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베트남 시장경제가 국영부문 민영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비교해서 베트남에서 부족한 점은 중국의 활발한 향촌기업 부문과 향촌기업을 지지했던 초기의 농촌 지역의 수입 증가, 그리고 1990년대 베트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국내 민간부문이다.

둘째, 1990년대 초반 개혁가들이(이 경우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 및 사회현상연구소) 노동시장이 필요하며 사회주의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고위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다. 따라서 노동시장이라는 금기도 비교적 초기에 해제되었다.

셋째,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중단된 이후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것이 시장경제였으나 자본주의는 아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 외국인들은 자본주의의 많은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꼈다. 즉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경제부문인 국영기업의 직원이었으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을 쉽게 얻을 수 없었고, 뚜렷한 민간기업 부문이 없었다. 또한 국영은행이 상업적으로 대출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에만 대출이 이루어져 자본시장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거래되지 못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사회계층 구조를 지지하는 시장 요인이 부재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의 등장을 요구하는 분명한 역사적 논리가 존재했다.

따라서 비교적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했으며 그 시발점은 1990년대 급속한 성장을 일구어 냈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되어야 했다. 물론 '모순적'이지만(적어도 주류 경제사상가들에게는) 1990년대 GDP 중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나 별다른 거시경제적 압박은 없었다. 여신제공(1988~89년 사이 실질이자율은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계속 유지되었다)이나 낮은 환율(1990년대 환율은 실질적으로 통합되었다) 등 국영기업에 대형 원조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국영기업과 정계의 정치적 연결을 지지해 주는 것은 세금관련 특혜, 대출 제공 등에 불과했으며, 국영기업이 주요 국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상황에서 많이 달라진 1990년대에 관리자들은 활동에 대한 제약이 늘어남을 경험했다. 1980년대 자율권을 얻으면서 하향 추세를 보이던 국영기업 대비 부동산이 베트남에 자본주의적 계급구조가 등장함에 따라 1990년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다.



이런 추세가 등장하자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금이 결정됨을 알게 되었다.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는 부문에서는 임금이 빨리 상승했고 경제 자체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빈곤하고 대부분 농업에 집중하는 경제구조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느꼈다. 실질임금은 일반적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는데도 말이다. 빠른 성장은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졌는데, 고용이 증가하고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가 권장되었다.

이러한 국영기업에 집중된 모델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식 자본주의의 기본적 계급 요인이 자리를 잡았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임금을 받았고, 주로 국영 근로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도시의 토지시장도 형성되었고, 현지의 지방정치인이 지주제에 대해 취한 입장이나 용익권(用益權)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법률 조항 등 여러 조치로 인해 제한적이었으나 지방의 토지시장도 개발되었고, 자본에 대한 접근도 쉬워졌다.

1990년대 후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등장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이 전체 인구가 8천만인 국가에서 아직 25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자본은 명확한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로 흘러가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 많은 추측이 난무했는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주도적인 수출 중심적 성장 모델에 의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지원이나 원조 등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과하고 경공업에서의 기대수익은 베트남 경쟁사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가 매우 빨리 성장하는 가운데 모든 정책입안자들이 베트남에 고용이 더 많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곧 변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 두드러진 정책상의 문제는 고용창출의 부재였다. 주민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국영기업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회적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지 않았다. 동시에 국영기업 내부에서 생겨난 자본계층은 이러한 형태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개발하는 데 미치는 제약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특히 관리자들은 퇴직연령에 가까워졌으며, 이들이 '실질적인 주식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 당시 많은 국영기업은 실질적으로 다수의 자본이 결합된 합작회사였으나 주식회사는 아니었다) 사업에서 자신들의 몫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자연스럽게 비교적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나 독특한 정치적 관계를 지닌 민간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서 민간부문이 빠르게 등장했다. 이 시기에 토지, 노동력, 자본시장이라는 필요한 선행조건이 모두 갖춰졌다. 법률의 변화와 정치적 신호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러한 민간 사업가의 사회적 배경이 국영기업 관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더욱 정상적인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추가적으로 진보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은 국영기업에 비해 훨씬 많은 고용을 창출했으며 더욱 빠르고 경쟁력 있는 성장 기회를 제공했고, 특히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협하지 않았다. 이들이 불러온 사회적 문제는 국영기업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중 조직 구조나 공산당 조직의 부재 등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와도 유사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법치주의로의 전환에서 기인한 자신감에서 공산당은 이러한 위협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였다.

높은 경제성장은 지속되었으며 베트남의 '과도기적' 성격인 중앙집중 계획경제 등, 과거에 대한 지식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 않았다.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기업부문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가능하고(1990년대 초반 세계화된 경제에 등장한 국영기업의 사례에서 이 교훈을 처음 얻었다),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거시경제나 사회의 안정을 해치던 국가보조금 없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1990년대 초반 확인된 과세표준은 기초 의료보장, 공공교육, 진보적 사회기반시설(농촌 지방) 등 사회부문의 재정을 공급하는 데 점진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표면에는 특정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흐름이 있었다.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연관은 부패를 의미하나, 베트남에서는 정치인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없었다. 농촌지방의 빈곤과 시장경제는 열악한 노동상황, 매춘 등 취약한 사회구성원이 고통 받음을 의미한다. 정상에서 정치적인 경쟁 세력이 없어 큰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문제로 이어졌다. 공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중시하는 베트남에서 질 낮은 공교육으로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으며, 주요한 정책 결정은 다양한 유형의 부패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는 낮은 성장, 비효율적 정책, 제멋대로인 정치인, 극히 불건전한 미래 등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민주화 없이 국가에 권한을 제공하여 이러한 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작업장 수준에서의 노동시장 변화

이는 근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작업장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는 매우 크다. 지난 시대에 근로자들은 국가에 의해 관료주의적으로 생활 상황이 주로 결정되는 국영기업의 노동자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이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또 실질임금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현재 상황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계층이다. 역사문화적 이유에서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 친근로자적인 성향이다. 노동시장은 보통 냉정하지만 거친 자본주의적 경향을 제한하는 법규와 국가 관행에 영향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세의 지배에 저항하는 역사와 지난 세기 동안 혁신적인 변화를 겪은 경험이다. 이는 국가의 권위가 힘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규범은 중요하며 베트남은 친노동자주의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노동쟁의시 효과적인 공식 노조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쟁의는 보통 공식 노조에 의해서가 아닌 지역 정당이나 국가 조직에 의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공식적으로 해결된다. 이는 물론 비공식적인 노동자 조직에 활동할 여지를 제한한다.

변화에 가장 큰 장애물은 변화의 성격이었다. 1981년 도입된 25-CP 시행령은 이 과정을 늦췄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속화시켰다. 관리자들이 ‘관망에서 탈피’ 했다고 비난했던(또는 탈피 자체를 방지했던) ‘공산주의’ 당원 조직이 있는 국영기업이 더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계획경제와의 모든 연관성을 단절한 기업들은 얼마간 생산량을 국가에 제공해야 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다양한 시기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베트남 변화의 ‘자연스런 속도’라는 관점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일부 국영기업 근로자들은 고용을 감소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반감을 보였으며, 당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와 더 단순한 차원에서 공공의 지지를 구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 다른 전환경제 국가들과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다른 전환경제 국가와 차별화시키는 특징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필

자가 생각하는 바를 일부 공개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실용주의와 변화에 대한 능력의 통합으로 이어진다. 공산주의 체제의 ‘유연함’은 일정 수준 ‘현실’에 대한 존중과 연결되며 (따라서 마오쩌둥주의 중국에서처럼 좌파주의적 어리석은 행위를 피할 수 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주민들 가운데서 ‘관망에서의 탈피’는 적절한 비유이다. 이 모두를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 압력에 반응할 수 있고 그러한 의지가 있는 국가적 정치 조직의 존재 여부이다. 시장과 발전하는 노동제도를 통해 이를 지지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이들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법이나 법규를 무시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딱딱하게 규정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현지 정치 지도자들이다(물론 뇌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KLI**

참고문헌

- Fforde, Adam (1987), *The Limits of National Liberation – problems of economic managemen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with a Statistical Appendix*(with the late Mrs S.H.Paine), London : Croom-Helm.
- Fforde, Adam (1996), *From Plan to Market :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with Stefan de Vylder, Boulder CO : Westview.
- Fforde, Adam (1997), *Doi Moi – Ten years after the 1986 Party Congress*, Ed. Adam Fforde, *Political and Social Change Monograph 24*, Canberr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Fforde, Adam (2007), *Vietnamese State Industr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ercial Renaissance : Dragon’s tooth or curate’s egg?* Oxford : Chandos.
- Landau, Ingrid (2004), *Re-Organising Labour : Workers, Trade Unions and the Party-State in Transitional Vietnam*, Masters Thesis : University of Melbourne.